



中國, 韓國人 直接 出願 認定할 듯 中國管理, 特許問題 韓國과 直接 交流 시사

中國이 가까운 시일내에 韓國人의 직접 出願을 認定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日本의 中國特許制度시찰단이 北京을 방문했을 때 中國特許廳의 高位官廳가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과 中國은 현재 국교가 없어 韓國의 對中國 出願의 경우는 日本이나 香港의 子會社를 통해 出願되고 있고, 특히 최근 韓國에서는 최대의 美國市場이 通商法의 立法化등으로 어려움이 많고 서울올림픽후의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中國市場의 開拓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되어있다고 덧붙었다.

따라서 韓國은 特許分野에서도 中國과의 관계개선이 중시되고 있고, 中國政府와 직접 교류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中國과 同盟관계에 있는 北韓의 입장을 고려 韓國과의 직접 교역이나 技術協力은 피하는 자세를 취해왔는데 外貨부족을 고민하는 中國으로서는 韓製品의 輸入은 經濟의 改善 및 국민생활 향상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곧 特許問題에 관해 韓國과의 직접

교류를 希望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技術協力을 본격화할 포석으로 간주된다고 分析했다.

한편 中國은 대만인의 出願이 香港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出願되고 있다는 事實을 처음으로 밝히고, 대만의 出願에

대해서는 국적을 「中國·대만省」으로 해오면 內國 出願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대만정부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서는 직접 出願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日, 特許審査官 대폭 增員 審査積滯解消 및 尖端技術 保護위해

日本 特許廳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년간 特許審査官을 150~200명정도 늘릴 計劃이다.

현재 日本 特許廳의 許·實 審査官은 약 850명 정도가 있으며, 이번 審査官 增員 計劃에 따라 93년에는 特許審査官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日本 特許廳의 이같은 조치

는 審査체로 인하여 技術진보 속도가 빠른 尖端技術의 保護에 問題가 많다는 국내외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현재 審査請求로부터 登錄까지 약 3년 1개월 정도가 걸리는 실정이다.

지난해 日本의 特·實 出願은 약 54만건 정도이며, 10년에 2배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日, 信託財産 對象에 知的所有權 포함 檢討

日本의 신탁업계는 국내외의 特許權 및 著作權등을 매입, 기업에게 사용권을 공여함으로써 얻은 권리사용료를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환원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신탁재산 대상에 知的所有權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日本신탁업계는 特許權등 知的所有權에의 투자가 종래의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비해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辨理士 등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우량 기술에 대해 거래기업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